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 7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- (UAE) 두바이, 지인·가족 초청 거주민 대상 3,000디르함 상당의 관광 혜택 제공
 - 두바이 경제관광부(DET)는 UAE 거주민 및 시민권자가 해외 거주 가족이나 지인을 두바이로 초청할 경우, 최대 3,000디르함(약 120만 원)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함
 - '26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국하는 방문객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으로 입국이 확인되어 호텔 숙박, 식음료, 테마파크/명소 입장권, 교통 서비스 등의 혜택 패키지가 제공됨
- (UAE) 에미레이트/에티하드 항공, 탑승권 기반의 관광 인센티브 도입
 -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은 탑승객이 탑승권을 활용해 UAE 관광·쇼핑·외식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관광 연계 마케팅을 강화
 - (에미레이트 항공) 하계 시즌 동안 탑승권과 신분증 제시하면 UAE 전역의 파트너사에서 할인이 가능한 'My Emirates Pass'를 운영
 - (에티하드 항공)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공식 승인 하에 탑승객 전용 '아부다비 패스'를 운영, 주요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에서 최대 15%의 할인 및 바우처 혜택을 제공
- (UAE) 두바이 호텔 업계, 영국·러시아 예약 회복으로 4분기 성수기 호황 기대
 - 두바이 호텔 업계는 여행 규제 완화 이후 주요 핵심 시장인 영국, 러시아 지역의 예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8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여 4분기 연말 성수기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
- (튀르키예)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성장을 지속 증가
 - 튀르키예는 2025년 사상 최대인 외래관광객 수 5,278만명을 기록하였고 관광 수입은 6.8% 증가한 65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정부의 중기 계획(OVP) 목표치인 640억 달러를 넘어섬
 - 이같은 성장에는 튀르키예의 문화, 미식, 건강, 컨벤션, 스포츠, 종교, 크루

즈 및 농촌 관광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관광 부문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 데 기인. 특히 세계적인 항공 허브 중 하나인 이스탄불 공항과 크루즈 항구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함으로써 크루즈 산업의 입지의 강화가 큰 역할

□ 비자 및 항공 동향

○ (UAE) UAE-인도 항공 및 관광분야 협력 강화 모색

-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 장관은 인도 공식 방문 기간 동안 인도 고위 장관 및 관계자들과 고위급 회담에서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
- 현재 양국은 국영 항공사가 운항하는 주 1,146편의 항공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 항공 노선 중 하나임

○ (UAE) 모든 국적자 대상으로 5년 유효 복수 입국 관광 비자 발급

- UAE는 모든 국적의 방문객이 후원자나 초청인 없이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5년 복수입국 관광 비자 요건 발표
- 5년 복수입국 비자는 아랍에미리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일반 관광 비자보다 더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관광객, 잦은 여행객, 가족 방문객 및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해 설계
-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동안 최소 미화 4,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은행 잔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, 방문객은 방문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, 추가로 90일 연장 가능(총 체류 가능기간 연간 180일)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항공·숙박·비자를 한번에 해결하는 '패키지 비자' 시범 도입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2030에 따른 관광 접근성 확대의 일환으로, 항공권, 인증 숙박시설, 전자 비자 신청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는 '패키지 비자' 시범 사업을 도입함
- 여행객들은 비자를 포함하여 이벤트, 관광 명소 등 다양한 맞춤형 액티비티를 한번에 추가할 수 있음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성지순례객 편의를 위한 1년 유효 복수 입국 비자 신설

-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부는 발급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하고 최대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복수 입국 'Umrah 비자'를 도입함
- 출국 후 자동 비활성화, 재입국 시 자격 재검증, 하지(Hajj) 시즌 입국 전면 제한 등 과밀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통제 장치를 병행 적용할 예정임

□ 아웃바운드 여행 동향

○ (UAE) 바쁜 일상 속 주말을 활용한 '마이크로트래블' 유행

-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주말 동안 짧게 휴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'마이크로트래블(단기 집중형 여행)'이 UAE 거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아부다비, 라스알카이마, 이웃 GCC 국가로의 주말 단기 여행 수요가 증가함
- 특히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오만의 와디 계곡 하이킹 등 아웃도어 체험 상품의 재구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

※ 출처 : 현지 언론 종합 (www.arabnews.com, www.khaleejtimes.com, www.gulfnews.com, www.thenationalnews.com 등)